

# 최근 노동시장 동향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

오상봉(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분석센터 소장)

- ◎ 9월 취업자 수가 전년동기대비 45만 1천 명 증가(1~9월 평균 57만 명 증가)하여, 지난 달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둔화
  - 고용률은 60.2%로 전년동기대비 0.4%p 상승(15~64세 고용률은 65.7%로 0.7%p 상승)
  - 인구 증가(41만 8천 명)를 상회하는 취업자 증가에도 비경제활동인구 감소(16만 2천 명)로 실업률이 0.5%p 상승
  
- ◎ 9월에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축소되었지만, 취업자 수 증가 양상은 이전과 거의 비슷함
  - 큰 폭의 인구 증가에 힘입어 50대 이상의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, 인구가 줄어든 청년층과 30대의 취업자 수가 증가하거나 소폭 감소에 그쳤음
  - 여성의 취업자 수는 남성과 대등하게 증가
  - 정규직과 임시직 취업자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일용직 취업자 수는 소폭 감소
  - 최근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금융·보험업 종사자 수는 지난달에 이어 줄어들었으나, 제조업과 도소매업, 음식·숙박업, 보건복지업 종사자가 큰 폭으로 증가
  
- ◎ 연령대별로 보면, 전체 취업자 수의 증가가 50대 이상의 취업자 수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이전과 다르지 않지만, 청년층 취업자 수 변화는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임
  -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40만 4백 명 증가(50대

- 20만 6천 명, 60세 이상 19만 8천 명)
  - 청년층 취업자 수는 청년인구 감소(5만 6천 명)에도 불구하고, 지난 12개월간의 증가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5만 2천 명 증가
  -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가는 주로 20대 초반(20~24세)의 취업자 수 증가에 기인하는데, 20대 초반의 취업자 수 증가폭(70만)은 지난 달 이래적인 이 연령층의 취업자 수 증가(14만 8천 명)에 비해 대폭 줄었음
  - 20대 초반의 취업자 수 증가는 졸업생과 재학생 모두 고용률 증가(1.2%p와 0.6%p)에 기인함
- ◎ 종사상 지위로 보면, 상용직과 일용직의 증감 폭은 지난 달과 비슷하지만, 임시직과 비임금근로자의 증감폭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임
- 상용직은 32만 4천 명 증가하고 일용직은 2만 8천 명 감소하여 지난 달과 거의 비슷함
  - 상용직 증가의 세부적인 양상도 지난 달과 거의 비슷한데, 25~29세와 30대의 상용직이 감소하고, 50대와 15~24세, 40대의 상용직이 증가함
  - 상용직 증가는 제조업과 보건복지업, 도소매업에서 주로 일어남. 지난달에 비해서는 협회 및 단체, 수리,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감소와 도소매업의 증가가 눈에 띈
  - 25~29세 상용직 감소는 주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과 도소매업에서 일어나고, 30대의 상용직 감소는 금융·보험업과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일어남
  - 임시직은 20만 1천 명 증가에 그쳐 지난 달에 비해 증가폭이 대폭 축소되었음
  - 임시직은 주로 도소매업, 음식·숙박업, 보건복지업, 협회 및 단체, 수리,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증가하였음
  - 지난 달에 비해 임시직 증가폭 축소를 주도한 업종은 제조업임
  - 지난 달에는 비임금근로자의 수가 증가(5만 7천 명)한 것에 비해 9월에는 3만 8천 명 감소하였음.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의 증가 폭이 축소되고, 무급가족종사자의 수는 감소하면서 비임금근로자의 수는 줄어들었음
- ◎ 업종별로 보면,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지난 달에 비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되

있으나, 여전히 제조업과 도소매업, 음식·숙박업, 보건복지업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고 있음

- 고용이 증가하던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협회 및 단체, 수리,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고용이 감소하게 된 점이 눈에 띈

※ 농림어업 취업자 수 감소의 절반은 60대 이후(특히 65세 이후)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, 50대와 30대(2만 3천 명)에서도 상당히 발생함

◎ 2014년 9월 현재 중소기업·대규모 사업체 모두 고용은 증가하고 있지만 8월에 비해 증가폭 축소

- 중소기업의 고용은 여전히 상용직(18만 8천 명)과 임시직(18만 1천 명) 위주로 증가하고 있는데, 지난 달 모두 47만 명에서 9월 30만 명으로 줄어들었음

-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은 11만 7천 명 증가하였는데, 지난 달 실적(15만 1천 명)에 비해 대폭 축소

◎ 입·이직을 살펴보면, 입직자의 증가와 이직자의 감소 모두 축소되는 양상을 보임

- 입직자 수는 상용직(8천 명), 임시직(13천 명) 모두 감소한 가운데 일용직(41천 명)이 증가하여 총 2만 명 증가. 이는 지난 달에 입직자가 12만 9천 명 증가한 것과 대비됨

- 9월 이직자의 수는 8만 2천 명 감소하여 지난 달(12만 4천 명)에 비해 감소폭이 줄어들음. 이직의 주요 이유는 여전히 '개인, 가족관련 이유'이며, 특이한 것은 '일자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영 악화'로 인한 이직 감소폭이 줄어들었다는 것임

## 최근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

- ◎ 2014년 7월 명목임금(5인 이상 사업체 임금근로자 전체)은 전년동기대비 1.8% 증가하였고, 실질임금은 0.3% 증가하여 전년동기 실적(각각 4.5%와 2.8%)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
  - 2014년 7월 상용근로자의 명목임금은 전년동기대비 1.5% 증가(전년동기 4.6%). 이는 초과급여의 10.3%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액급여가 3.3% 증가(전년동기 4.6%)에 머물렀고, 특별급여가 전년동기대비 10.1% 하락(전년동기 7.1%)했기 때문
  - 임시·일용근로자의 명목임금은 전년동기대비 0.5% 상승(전년동기 6.3%)
  - 2014년 7월 협약임금(초과, 특별급여 제외) 진도율은 41.8%로 전년동기(42.5%)와 비슷한 수준이며, 인상률(임금총액 기준)은 4.5%로 전년동기대비 0.5%p 상승
  
- ◎ 2014년 1~7월 명목임금은 전년동기 평균대비 2.3% 상승하여 전년동기 평균 실적 대비 1.9%p 낮음
  - 상용근로자의 7.3%만큼 높아진 초과급여(전년동기 0.1%)에도 불구하고 정액급여와 초과급여의 낮은 인상률(3.1%, -2.5%, 전년동기 4.7%, 3.1%) 상용근로자의 명목임금 총액 인상률은 2.4%에 그침(전년동기 4.2%)
  - 임시·일용근로자의 명목임금은 1.8% 상승. 이는 전년동기 평균 실적에 비해 5.2%p 낮아진 수준
  
- ◎ 2014년 7월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0.2% 증가
  - 2014년 7월 근로시간은 185.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.3시간(0.2%) 증가
  - 소정근로시간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로시간이 늘어나면서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0.1% 증가(월력상 근로일수는 23일로 같음)
  - 반면 비상용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1.6% 감소
  
- ◎ 한편 2014년 1~7월 평균 근로시간은 1.1% 감소
  - 초과근로시간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.3일 짧아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해 상

- 용근로자의 총근로시간 전년동평균대비 0.9% 줄어듦
- 비상용근로자의 총근로시간(118.0시간)은 5.1% 감소해 전체 근로시간 감소에 주요한 영향을 미침
- ◎ 2014년 1~7월 평균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은 사업체 규모별로 상이한 양상
- 중소기업 사업체 상용근로자 총근로시간은 전년동기대비 2.2% 감소한 반면, 대규모 사업체 상용근로자 총근로시간은 전년동기대비 0.2% 증가
  -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중소기업·대규모 사업체에서 모두 인상되었으나 인상규모에서는 차이가 남

### 최근 해외 고용동향

- ◎ 미·일 회복 지속
- 2014년 3분기 기준 미국 실업률(전체 6.1%, 청년 13.4%) 및 고용률(전체 68.1%, 청년 47.3%)은 회복이 매우 완만하게 진행중
  - 일본 청년 실업률은 2014년 8월 기준 5.4%로 전월대비 1.3%p 하락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
- ◎ 유로존 고용상황 정체
- 독일의 청년 실업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도 낮은 수준인 7% 후반대에서 7분기째 정체
  - 그리스 청년 실업률은 2013년 1분기 이후 5분기 동안 6.5%p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2014년 2분기 기준 53.1%로 매우 높은 수준
  - 유로존 18개국의 경우, 2014년 2분기 들어 전체 실업률은 11.6%, 청년 실업률은 23.5%로 각각 소폭 개선